



광산구, 국토부 장관에 지역현안 지원 건의

광주 광산구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광산구에 따르면, 박 청장은 광주송정역 선상역사 증축 설계안에 광장 조성 방안을 비롯해 광산구 오토캠핑장 진입로 설치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원 장관에게 요청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주송정역은 광주를 넘어 호남권역의 관문이지만 타 고속철도 역에 비해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복합 환승센터 건립 사업마저 무산돼 광주 시민의 허탈감,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며 “광주송정역에 광주 교통의 핵심 거점에 걸맞은 소통과 공유의 공간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광주송정역이 호남권의 관문이란 위상에 비해 시설이 열악한 것에 공감한다”며 “건의해 준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하 기관들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철 기자



중기중앙회, 광주교육청과 소통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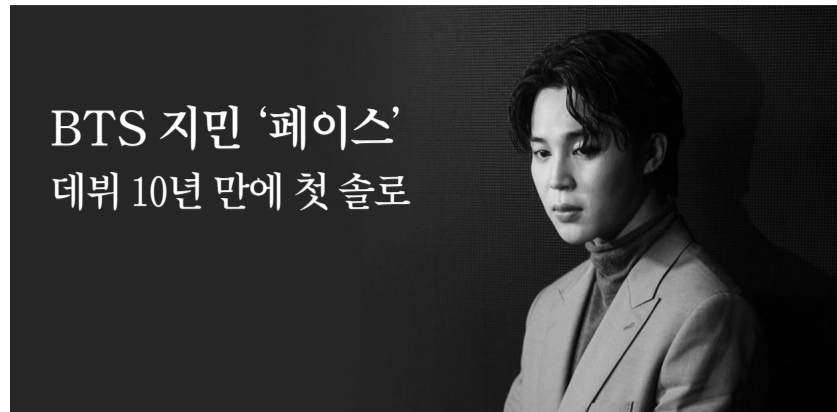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현안 과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간담회에는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을 비롯해 광주시교육청 납품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구매제도 적극 활용 △학교 졸업앨범 구매시 MAS 적극 활용 △가구 품목 공사 계약 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준수 △구매 담당자 대상 공공구매제도 정기 안내·홍보 실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임경준 회장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광주 교육과 중소기업계 상생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학교도 상생 발전할 수 있다”며 “교육청에서 타 지역 제품이 구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제품 우선구매 제도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



BTS 지민 '페이스' 데뷔 10년 만에 첫 솔로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 (BTS) 지민(28·사진)이 데뷔 10년 만에 첫 공식 솔로 음반을 낸다.

22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지민은 오는 3월24일 첫 솔로 앨범 '페이스(FACE)'를 발매한다.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 지민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담았다”면서 “지민은 '페이스'를 통해 색깔이 뚜렷한 음색과 섬세한 퍼포먼스 등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확실하게 드러낼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2013년 데뷔한 방탄소년단은 지난

해부터 솔로 활동 병행을 본격화했다. 지민은 제이홉, 진, RM에 이어 네 번째로 솔로 활동에 나선다.

지민은 솔로 앨범 발매에 앞서 이미 솔로곡을 발표하긴 했다. 방탄소년단 앨범에 실린 '라이(Lie)'와 '세렌디피티(Serendipity)' 그리고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OST '위드 유(With you)', 그룹 '빅뱅' 멤버 겸 솔로 가수 태양과 협업한 '바이브(VIBE)' 등을 내놓았다. 첫 자작곡 '약속(Promise)'으로 작사·작곡의 역량도 뽐냈다.

뉴시스



(주)한글피움, 초록우산과 사회공헌 협약

(주)한글피움(대표 이향숙)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정기 및 일 시후원, 멘토링 참여 등을 통해 지역의 보호대상아동 자립을 지원키로 했다. (사진)

22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는 사회적기업 (주)한글피움과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린 리더클럽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주)한글피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정기후원 및 바자회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아동복지 발전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어린이재단 중고액후원자모임인 '그린리더클럽'에 가입해 보호대상아동들의 자립지원에 동참했다.

강주비 기자



동구의회 '차 없는 음악거리' 청원 간담회

광주 동구의회는 아시아 음식 문화거리 차 없는 음악거리 청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전날 열린 간담회에는 지역 상인들과 동구의원, 동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원인들은 매주 금·토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차 없는 음악거리 지정과 젊은이들의 케이팝 버스킹 로드 명소화, 자영업 가게 앞 야외 테이블 영업 등을 요청했다. 쇠퇴한 상권에 더해 급격한 물가 상승, 금리 인상까지 겹쳐 갈수록 심해지는 인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행사를 주최한 문선화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은 “상권 활성화뿐 아니라 안전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동구의회는 주민과 상인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이 모이는 대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서부소방, 어린이집 안전케어 프로젝트

광주 서부소방서는 지난 20일 피난약자시설인 어린이집에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안전케어 프로젝트 제공 및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사진)

22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안전케어 프로젝트는 재난 발생 시 어린이의 다수 인명피해에 따른 맞춤형 피난대책 강구 및 피난약자의 자력대피능력 부족에 따른 피난대책의 다각화 필요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추진대상은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어린이집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벽면에 촉광식 피난 유도선 설치 △화원에 직접 덮여 화재진압 또는 대피시 화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소방담요 보급 △사용이 편리하고 K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스프레이식 소화기 보급 △촉광식 피난유도선 및 소방담요를 활용한 피난대피 훈련 실시 등 안전케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김혜인 기자



북부소방,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추진

광주 북부소방서는 구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북부소방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최근 관련법령에 따라 전 기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설치 확대에 따른 관계인 등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와 화재 예방을 담당하고 공동주택 세대 내 설치되어 있는 피난 시설 종류에 따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충전기 지상공간 설치 권고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보급 △화재발생 시 먼저 대피, 119신고 후 초기대응 실시 안내 △공동주택 세대 내 피난시설에 따른 당부 사항 전달 등이다.

주영철 예방안전과장은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인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화재 예방에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성현 기자

김범수,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1000만원 기부

가수 김범수(사진)가 선행을 펼쳤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김범수가 성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범수가 전달한 성금 1000만원은 임시 보호소를 중심으로 식량키트 및 텐트, 담요 등 보온 용품을 지원하고, 이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인도적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범수는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힘든 시

간을 보내고 있을 이재민분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구호활동과 희귀난치병 어린이 치료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하며 사랑의열매 고액 기부자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뉴시스



“박연진, 미워하길 바라”…브라보! 임지연

배우 임지연이 '더 글로리' 속 자신의 배역인 '박연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22일 임지연은 한 패션 매거진과 함께 화보 및 인터뷰를 진행했다. 화보 속 임지연은 꽃 무늬, 붉은색 원피스 등 강렬한 의상도 소화하며 화보장인의 면모를 보였다.

인터뷰를 통해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 대한 임지연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다. 그는 “대본이 너무 재밌어서 처음부터 잘될 거라고 생각했다. 시즌2부터 진짜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 반응이 너무 취해있지 않으려 한다”라며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임지연에게 연진은 거대한 산과 같았다고. 그는 “일단 한다고 했는데, 오만가지 생각을 했다. 결국

제가 찾은 건 '그냥 나로 하자'라는 거였다. '내 목소리, 내가 평소에 쓰는 얼굴, 다 쓰자'. 그렇게 잡은 후부터는 쉬웠다”라고 설명했다.

실감 나는 악역 연기 덕분에 '실제로 못된 거 아니냐' 등의 말을 들었을 때 어땠냐고 묻자, 임지연은 “대본을 받은 순간부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연진을 미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못 죽어서 안달이 났으면 좋겠다”라며 뿌듯해 했다.

앞으로 하고 싶은 배역에 대해선 “제대로 된 여성 액션물도 도전해 보고 싶고, 한 없이 영롱한 여자도, 아주 현실적인 여자도 연기해보고 싶다”라고 답했다.

임지연은 내달 10일 '더 글로리' 파트 2 공개를 앞두고 있고, 드라마 '마당 있는 집' 촬영 중이다.

뉴시스